인천경제청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발자금 확보"

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
1조8000억 확보…2023년 개장 목표
생산유발효과 약 5조8000억원 전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가 1단계 개발을 위한 약 1조 8000억 원의 사업자금 확보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스파이어는 지난 2019년 5월 착공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23년 개장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IBC-III에 추진 중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북미형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다. 1단계 사업의 주요 시설은 약 1000실 이상의 3동의 타워로 구성된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실내 워터파크, 쇼핑센터 및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는 이번 사업자금의 성공적 확보로 원활한 추진과 함께 생산유발 약 5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약 1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인스파이어를 비롯해 파라다이스시티, RFKR 복합리조트 등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총 3개의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합리조트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중심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효자 노릇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합리조트 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에 성공적으로 사업자금 확보가 마무리돼 기쁘다"며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강화도, 개항장, 섬 관광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영종 복합리조트 집적화사업과 연계, 인천이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교 기자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설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장학기금 5000만원 전달식도 가져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일본언어문화학과 설립 4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는 지난 27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월천홀에서 일본언어문화학과 설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우 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 박현순 대외협력처장, 이용기 총동창회장, 정경옥 일본언어문화학과 동문회장 및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졸업생·재학생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수와 기념공연, 축사가 이어졌고 40년을 돌아보는 기념영상 시청 시간을 가졌다. 이어 36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해온 왕숙영 교수의 정년퇴임식도 열렸다.

1981년 문과대학 소속 일어일문학과로 시작한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일본 이해의 시야와 지평을 확장하고 대학과 사회를 잇는 실천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1989년에는 타 대학에 앞서 학문으로서 일본을 연구하는 '일본학' 개념을 도입했고, 2012년부터는 '문화'를 중심에 두고 일본 이해를 시도하면서 시대와 학문 연구의 흐름에 발맞춰 발전해왔다.

이날 후배들을 위해 졸업생들이 모은 장학기금 5000만 원 전달식도 이어졌다. 정경옥(지마이스 대표) 일본언어문화학과 동문회장은 "2013년부터 작은 정성으로 십시일반 모금한 소중한 기금이고, 오늘 전달식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설렜는지 모른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윤용해 기자

■ 김석훈의 백령도 단상(斷想)

백령도와 심청가,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교육

심청전 원조·문화지리적 콘텐츠 섬
'심청가' 국가무형문화재 5호 지정

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섬이자 효녀 심청의 전설을 간직한 문화지리적 콘텐츠가 있는 섬이다. 서해의 4대 험로(險路)이자 심청이가 몸을 던졌던 두무진 앞 인당수(印塘水), 심청이 타고 온 연꽃이 해안에 밀려왔다는 연화리, 그리고 심청이 연꽃으로 환생해 조류에 흘러가다 걸렸다는 연봉바위는 백령도가 심청전의 원조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심 봉사의 삶의 터전이 백령도 인근 황해도 황주이며, 당시 상인들의 중국 교역루트가 황해도 장산곶 부근 포구에서 백령도 근해를 거쳐 산동성, 남경, 상해 등 중국 동남해안으로 연결된다는 지리적 관계는 앞선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심청전을 소재로 한 심청가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로, 판소리(Pansori)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됐고 200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의 관심도나 대중성은 크지 않았고, 일부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들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가 영화 서편제 이후 최근 다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국악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판소리 심청가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부했다. 콘텐츠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제작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 심청의 고장 백령도에서는 행정 및 문화 관계자를 중심으로 공연장 건립은 물론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안(案)으로 심청전을 무대에 올리고, 심청가 등 판소리와 몽금포(장산곶) 타령 등 서도민요 공연을 계획한 바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가 백령도 및 백령도 내 교육기관에서는 가치 있고 환영할 일이며,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여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우는 계기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역 실정에 특화된 콘텐츠를 통해 지역주민 혹은 학교의 전환기 교육으로 판소리와 민요 분야(음악), 연극, 미술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활동도 예정돼 있어 낙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자료 제공은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시교육청이 쏘아올린 영상자료, 수평적·수직적 시공간 속에 어떤 반향의 나비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백령중고 출신이 소리꾼이 되어 판소리 공연장에 나서는 단상에 젖어본다.

나아가 인천시와 옹진군, 백령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 영상 자료의 제작은 '판소리'라는 교육 목표 달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교재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지역화' 그리고 '마을 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장을 펼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훈·백령중고 교감

인천문화재단, 12월 트라이보울서 풍성한 공연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은 2021년을 마무리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12월 관객들을 찾아간다.

춤추는 원숭이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모험담으로 어린이 관객과 만난다. 어린이무용 '루돌프'는 겁 많은 원숭이 루돌프가 새로운 세상과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하는 내용으로, 신나는 모험담이 자유로운 현대무용과 만나 어린이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예정이다. '루돌프'는 12월 4일 오후 2시와 5시 만나볼 수 있다.

또 대표 기획프로그램인 '트라이보울 시리즈'로 따뜻한 힐링 연극 '내 모든 걸'을 준비했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주인공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으로,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떠나 차별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 가득한 따뜻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극 '내 모든 걸'은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관람할 수 있다.

2021년 트라이보울 아카데미 '출발! 트라이보울 탐험대'는 6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12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또 종이컵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프로그램 일정 및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트라이보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32-833-5994, www.tribowl.kr

정민교 기자

연수여고, '2021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워크숍 성료

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는 26일 학교 교육력 향상의 일환으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교직원들이 올해 실시했던 부서별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공유해 2022년 신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인 학사와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교직원들이 함께 하는 민주학교, 생활기록부의 효율적 기재 및 관리,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고교학점제 대응,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 학생 인권과 의무가 존중되는 생활지도, 교직원의 복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장단점 및 보완사안을 논하고 차년도 우선순위 사업 결정 등에 참고하고자 팀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이어졌다.

우인상 교장은 "교육과정 평가회의 자리를 만들어 학교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수여고가 지역명문학교로 한 단계 더 도약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
경기도의 참 언론사인
경기신문에서 독자 여러분의
참신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귀 기울이는 경기신문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메인홈페이지 (www.kgnews.co.kr) 우측상단에 제보·투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더 빠른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제보전화 | | 031) 268-8114 , 031) 257-4459 |